

※ 핵심 정리

작자 : 오상원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갈래 :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전후(戰後) 소설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배경 : 6·25 전쟁 중의 거울 어느 마을과 눈 덮인 독일

시간 - 겨울. 한 시간이라는 삶의 유예 기간인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 미래를 거쳐 총살 직전의 현재.

공간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어느 마을의 움막과 눈 덮인 대지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경향 : 실존주의 경향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주인공의 자의식이 깊어질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보임, 이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전지적작가 시점을 교차시켜 가면서 주인공의 의식 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문체 : 간결체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제재 : 전쟁과 죽음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성격 : 고백적, 실존적, 비극적, 독백적, 비판적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내용 : '의식의 흐름'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처형 당하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생생히 그리고 있다. 차디찬 흰 눈의 이미지와 총살 직전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주인공의 내면 의식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표현 : 의식의 흐름 수법, 일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고, 현재형에 의한 진술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박진감 있고 현장감 있는 사건 전개가 가능하게 하고 비극적 종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구성 : 특별한 서사적 사건 없이 주인공이 총살 당하기 직전에 유보된 한 시간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회상을 시간의 순차성을 무시한 채 보여 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발단 - 인민군에게 잡혀 총살당하게 된 그의 심리적 갈등이 제시됨

전개 - 북으로 진격했으나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가 몇 차례 전투 후에 6명만 남음

위기 - 인민군의 병사 처형 장면을 보다가 자신의 처지라 인식하고 응사하다 부상당함

절정 - 전쟁에 헛되이 죽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이 눈 덮인 들만에 주제로 암시됨

결말 - 죽음 직전의 마지막 의식이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조시킴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주제 :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죽음. 전쟁과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실존적 인식,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허무함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인물의 성격 : 이 작품에는 '나'만이 등장한다. 다른 인물들은 '나'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시각으로 이해되고 제시된다. 이 작품의 '나'는 전쟁의 의미를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절망하여 전쟁 속에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인물 유형은 전쟁을 겪은 세대의 공통된 심리적 양상이다.

그 : 이 소설의 화자이며 패주(敗走)하는 낙오병들의 소대장. 비인간적인 참혹성을 독백과 회상 형식으로 담담하게 표현하며 부하를 아끼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군인. 포로가 되어 결국 총살당함.

선임 하사 : '그'의 부하로서 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함

특징

①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서 벗어나 '의식의 흐름'이라는 소설 기법을 사용해서 심리적 갈등을 주로 서술함.

② 호흡이 짧은 문장과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급박한 분위기를 형성함.

③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비극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④ 휴머니즘적 실존주의 경향의 작품임.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줄거리 :

1. 적군에게 체포되어 움 속에 갇힌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현재) - 의식의 흐름 수법 활용

2. 주인공에 대한 적군의 심문(체포 직후의 상황 회상)

3. 한 시간 후에 처형당할 자신의 운명 상상(미래)

4. 죽음의 순간 상상

- 살해자(적군 병사)의 태연함, 비정함

- 붉은 피 :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함.

- 하이얀 눈 : 전쟁의 비극적 상황 제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 상징.

- 색상 이미지 대비

5. 죽음의 무의미함과 전쟁의 비극성

6.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현재의 실제 상황) => 발단의 상황 재연

7. 처형 명령을 내린 적군의 지휘 본부(객관 상황의 압축적 제시)

8. 처형 직전의 배경 제시와 주인공의 의지

9. 처형 순간의 상황 - 죽음의 무의미함

10. 인간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하는 전쟁의 비극성 - 휴머니즘의 역설적 옹호

인민군에게 잡혀 죽음을 목전에 둔 심리적 갈등, 죽음의 무의미함과 전쟁의 비극성이 '그'의 의식 속에서 반복되며, 지나온 전투 상황과 패주(敗走) 경로가 떠오른다.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북으로 진격하면서 몇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간 '그'의 부대는 본대와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눈 속에 쓰러진 부하들을 버려 둔 채 여섯 명만이 눈을 헤치며 ××지점에 이르렀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로(大路)를 횡단할 때, 돌연 일발의 총성과 함께 누군가 쓰러졌다. 선임 하사였다. 그는 선임 하사를 부축하고 산 속으로 들어갔다. 새벽이 가까워진 산 속에서 선임 하사는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죽어 갔다. 그는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면서 남쪽으로 건다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불안과 절망, 피로와 굶주림, 추위와 고독 속에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험한 준령을 넘었다. 인적 없이 황량한 마을. 그는 이상한 발소리를 들었다. 한쪽 벽으로 몸을 피하고 보니 인민군들이 한 청년을 죽음의 독길로 내몰고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인민군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두 놈이 쓰러졌다. 일순간에 지나자 인민군이 응수를 해 왔다. 반격을 받은 그는 의식을 잃는다. 이후 몇 번의 심문이 있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몸을 웅크리고 움 속 감방에 쓰러져서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 예정대로 남쪽으로 내달는 독길을 건다가 총살된 것이다. 그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자신의 삶을 끝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독길을 걸어간다. 흰 눈이 희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지자 자신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

1. 의식의 흐름 기법 : 사건의 서술보다는 인물의 내면 의식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서술하여 소설의 내용을 전개하는 기법
2. 실존적 : 실존이란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비록 죽을 지라도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추구하여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죽을지라도 잠시나마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 죽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 시점의 변화 : ['유예'의 시점 변화, '그'와 '나' - '유예'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시점의 변화라는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용하고 있다. '유예'는 주인공의 자의식과 관련이 없는 부분, 어떠한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주인공을 '그'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달리 주인공의 자의식이 깊어져 독백하는 부분에서는 일인칭 주인공시점으로 주인공을 '나'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인칭 주인공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 6·25 전쟁에서 '그'는 소대장으로 부하들을 인솔하고 적의 배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본대와의 연락이 끊기고 만다. 눈 속에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험한 준령을 넘는데 사형 집행 직전의 청년을 발견한다.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짊어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쏘아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에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른다. 그는 폭 고개를 문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룬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흠여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똑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폭 쓰러진다. 의식이 깜박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상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쿡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얹어서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검붉은 피가 함뿍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아니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 간다. 방 안이다. 방 안에 누어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오른다. 점점 멀어져 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 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에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가.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짊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역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짊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함뿍 쌓인 흰 독길이다. 오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훗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달은 길ियो.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훗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잠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눈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A]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 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 오상원, 「유예」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고 간결한 문체를 통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중심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액자 형식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8 윗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 ① 청년을 총살하려는 적들의 사수를 '그'가 쏘아 쓰러뜨리는 장면
- ② 사격이 끝나고 포위해 오는 적들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 '그'가 잡히게 되는 장면
- ③ 적들의 심문 상황에서 '그'가 살려 달라고 매달려 보지만 결국 거부당하게 되는 장면
- ④ 적들의 명령에 따라 '그'가 사다리를 기어올라 땅으로 나오자마자 눈 속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장면
- ⑤ 흰눈 내린 트인 별판을 '그'가 한 걸음한 걸음 두 뼘뼘 걸어가고, 이후 총살을 당하는 장면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역전하는 구성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려는 기법적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②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이상적 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③ 암시적이고 우화적인 수법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전쟁 상황을 통해 인간적 가치가 훼손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적대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 소설 [37~39] 오상원, 「유예」

지문 이해하기

[해제]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전투에서 낙오된 ‘그’가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다. 짧은 문장과 현재형의 서술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고뇌와 전쟁의 참상을 형상화한 전후 소설이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파괴의 현실에 대한 고발

전체 줄거리

북으로 진격을 하던 ‘그’는 본부와 떨어져서 인민군들의 공격을 받다가 나머지 부하들과 함께 낙오된다. 눈 속에 쓰러진 부하들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가다가 ‘그’만 살아남는다. 남쪽으로 계속 걸던 도중, 적들이 청년을 총살하려는 장면을 보자 ‘그’는 적들에게 총을 쏘게 되고 포로로 잡힌다. 적들의 심문이 있은 뒤, 전향을 거부한 ‘그’는 마지막까지 나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총살을 당한다.

37 서술 방식의 이해 [답]④

이 글은 전쟁 포로가 된 ‘나’가 심문 과정을 거쳐 처형당하는 상황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이 서술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액자 형식의 구성은 살펴볼 수 없다.

- ① ‘그 순간 폭 쓰러진다. 의식이 깜박 사라진다.’ 처럼 짧고 간결한 문체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마지막 문단 등에서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③ 적들에게 붙잡혀 총살형을 앞둔 ‘그’를 중심 인물로 설정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눈에 함박 쌓인 흰 독길이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세부 내용의 이해 [답]③

이 글은 전쟁을 겪으며 총살을 기다리는 인물의 실존적 내면 의식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들이 ‘그’에게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남쪽으로 내달은 길이라고 말한다든지, ‘그’가 총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데서 의연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③에서 제시한 ‘그’가 심문당하는 상황에서 살려 달라고 매달리지만 결국 거부당하게 되는 장면은 떠올리기 어렵다.

- ①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②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향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④ ‘입구에 다다르자 ~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 결코 허튼, 불안 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39 주제 의식의 이해 [답]④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비인간적 살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무의미성과 참혹함, 전후 세대가 겪는 실존과 불안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할 수 있다. [A]는 총살형을 집행한 뒤에 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말아 피울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전쟁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 가치가 훼손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총살이 진행된 이후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나’의 죽음을 둘러싼 내면 의식이 주로 서술되고 있을 뿐 이상적 현실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살펴볼 수 없다.
- ③ 암시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을 확인할 수 없고, 인물들에게서 갈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나’가 총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대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태도는 살펴볼 수 없다.

[앞부분의 줄거리] 인민군의 포로가 된 국군 소대장 '나'는 처형을 기다리며 움 속에 갇혀 있다. '나'는 아군 병사가 인민군에게 처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적의 사수를 향해 총을 쏘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는데,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그 아군 병사가 머물렀던 움일까 생각하며 움에 갇히기 전의 심문 내용과 포로로 잡히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린다. '나'가 지휘하는 수색대는 전투를 치르며 적의 배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본대와외의 연락이 끊어지고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 적의 총탄에 쓰러져 갔다.

일순간이 지났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 그 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다. 그가 적정 을 살피려 고개를 드는 순간 또 총알이 날아왔다. 측면에서부터다. 모두 응전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대 로 쪽으로 각도를 돌렸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놈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적 쪽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다. ○ 그렇다고 이대로 언제껏 있을 수도 없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흰 눈 위다. 그들은 산기슭까지 필수적으로 포복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총알은 비 오듯 집중된다. 비명과 더불어 소대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땀이 비 오듯 흐른다.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포복을 계속하였다. 의식이 다자꾸 흐른다. 산기슭 흰 눈 속에 덮인 관목 숲이 눈앞에서 뿌려나 흩어진다. 총성은 약간 잦아졌다. 산기슭으로 타고 오르는 순간 선임 하사가 쓰러졌다. 그는 선임 하사를 부축하고 곁머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산속 깊이 들어왔는지 모른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서였다. 몹시 춥다. 몸을 약간 꿈틀거리려 본다. 전 근육이 추위에 마비되어 감각을 잃은 것만 같다. 인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쿠퍼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렴풋이 눈 속에 부서지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시간이 된 모양이다. 몸을 일으키려고 움직이려 본다. 잠시 몽롱한 시각이 흐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몹시 춥다. 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 몽롱하게 정신이 흩어진다.

전공 과목은? 왜 동무는 법과를 선택했었소? 어렸을 때부터 동무는 출신 계급적인 인습 관념에 젖어 있었소, 그것을 버리시오. 나는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소, 나는 동무를 어느 때라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소. 문자방으로 스미어 오는 가는 실바람에 스칠 때마다 화롯불이 붉게 번져어 갔다. 나는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소. 자, 담배를 태우시오. 꾸부러진 부젓가락으로 재 위를 헤칠 때마다 더욱 붉게 불꽃이 번진다.

그렇다면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또 이 세상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요.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 동무는 그렇게 내 얼굴을 차갑게 치어다보고만 있소?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 알겠소. 나는 동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으로 동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유감이요. 주고받던 대화, 조그만 방 안, 깨어진 질화보가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는 무겁게 몸을 뒤돌었다. 희미하게 또 과거가 이어 온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서였다. 산속의 새벽은 아름답다. 눈 속에 덮인 산속의 새벽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해가 적 이 높아졌을 때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선임 하사는 피에 붉 게 젖은 한쪽 다리를 꼭 움켜쥔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검붉은 피가 오르면서 어젯죽지와 등허리에 길게 얼룩져 있다. 그는 급히 선임 하사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조용히 눈을 뜬다. 그리고 소대장을 보자 쓸쓸히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선임 하사를 꼭 그려안고 뺨을 비비대었다. 단둘뿐! ○ 인제는 단둘이 남았을 뿐이었다.

“소대장님, 인제는 제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 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

도 없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선임 하사, 그는 이차 대전 시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 종군하다 북지(北支)로 이동, 일본 항복 과 더불어 포로 생활 이 개월을 거쳐 팔로군(八路軍), 국부군, 시조(時潮)가 변전(變轉)되는 대로 지역(區域)을 표류하다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군 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것 다.

<중략>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췄던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인가?……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느……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향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짊어지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 잡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함박 싸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나…….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달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 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인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잠음만 같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맡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빛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 오상원, '유예'

01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선임 하사와 달리 주인공은 전쟁과 죽음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 ② 선임 하사와 달리 주인공은 죽음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 ③ 주인공과 달리 선임 하사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④ 선임 하사와 주인공 모두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인물이다.
- ⑤ 선임 하사와 주인공 모두 죽음 앞에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02 다음의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과제: 소설의 구성 요소와 연관 지어 윗글의 제목을 설명하시오.
과제 해결 전략: '유예'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고 ㉠~㉣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유예(猶豫) 명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3. [법률]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 ① ㉠을 활용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속도나 긴박하지 않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 ② ㉡을 활용하여 전투 중에 등장인물 대부분이 죽고 소수만 남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으로서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 ④ ㉣을 활용하여 공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 ⑤ ㉤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처형이 결정된다는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03 <보기>를 참고할 때, 뒷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상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인과적인 서술이 없고 분절적이다. 이는 영화에서 보여 주는 쇼트의 결합 방식과 유사하다. 영화에서는 분절적인 쇼트를 결합하여 서사를 따라가도록 한다. 또한 충분한 언어적인 서술 없이 시간이 이동하기 때문에 각 장면은 시간이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의 연속성이 전제되어 있어 분절적인 쇼트가 연속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현장감을 제공한다. '유예'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옮겨 가는 시간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 장면 사이의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시간 이동을 통해 사건에 인과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사의 인과성이나 연속성보다는 주인공의 분열된 내면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소설이다.

- ① 심문 장면 속에 질화로를 묘사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시간의 이동이 있군.
- ② 심문 장면과 전투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과 관련된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군.
- ③ 사형 집행 후 주인공과 사수들에 대한 서술에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진술되어 있군.
- ④ 처형을 결정하는 심문 장면과 죽음에 대한 내면 의식을 드러낸 부분이 서로 다른 시간으로 서술되어 있군.
- ⑤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때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없어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군.

01 ⑤ 02 ③ 03 ①

오상원, '유예'

[해제] 이 작품은 전쟁 중 포로가 된 주인공이 적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총살되기까지 주인공의 의식의 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인공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그와 관련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전쟁의 무의미성,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 등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전쟁과 죽음이 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실존주의적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 존재의 가치

[전체 줄거리] 국군 소대장인 '나'는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움 속에 갇혀 총살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벌어진 사건을 회상한다. '나'는 부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북으로 진격하다가 부대가 전멸하고 혼자 살아남게 된다. 남하하면서 들른 마을에서 인민군들이 아군 병사를 총살하려는 것을 보고 적의 사수를 향해 총을 쏘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다. 포로 심문 과정에서 인민군이 끊임없이 회유하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다. 유예 시간이었던 한 시간이 지난 후 끌려 나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눈 쌓인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01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실마리]** 죽음 앞에서 의지적인 태도

선임 하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해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가 옛보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도 인민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 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임 하사와 주인공 모두 죽음 앞에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마리]** 선임 하사와 달리, 전쟁과 죽음의 비극성을

선임 하사와 주인공 모두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로서 전쟁 과 죽음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실마리]** 선임 하사와 달리, 죽음을 운명적인 것으로 선임 하사는 전쟁 중 부상으로 인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인공은 스스로의 의지로 죽음을 택하고 선임 하사처럼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③ **[실마리]** 주인공과 달리,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임 하사는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여유를 지닌 직업 군인으로서,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④ **[실마리]**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선임 하사와 주인공 모두 죽음을 수용하고 있으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재 가치가 무시되는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실마리]**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시간

'유예'의 사전적 의미 중 두 번째 의미를 고려하면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총살이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작품에서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므로 제목을, 총살 결행 전까지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마리]** 속도하지 않는 등장인물의 성격

'유예'의 사전적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를 고려하면 결단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② **[실마리]** 소수만 남게 되는 사건

'유예'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 작품에서의 의미로 도 적절하지 않다.

④ **[실마리]** 등장인물의 갈등

'유예'의 사전적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를 고려하면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심문 장면이나 ㉔을 통해 등장인물은 공간 선택을 두고 갈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⑤ **[실마리]** 사건의 결말을 암시

'유예'의 사전적 의미 중 두 번째 의미를 고려하면 결행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작품에서 예정된 대로 주인공의 총살이 결행되나 제목에 담긴 의미를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실마리]** 두 장면 사이에는 시간의 이동

심문 장면 사이에 질화로의 불꽃 장면이 겹쳐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과거 회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 두 장면 사이에 시간의 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실마리]** 회상하여 현재 상황과 관련된 인과 관계

현재 주인공은 포로가 되어 처형을 기다리며 움 속에 갇혀 있다. 심문 장면과 전투 장면을 회상하여 포로로 잡혀서 처형이 결정되기까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실마리]**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사형 집행 후 주인공이 죽어 가는 상황을 진술한 것은 현재 상황을 서술한 것이며 사수들에 대한 서술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해당 한다.

④ **[실마리]** 서로 다른 시간

처형을 결정하는 심문 장면은 과거, 죽음에 대한 내면 의식을 드러낸 부분은 현재로 서술하여 서로 다른 시간으로 서술되었다.

⑤ **[실마리]** 지시어가 없어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일순간이 지났다. ~ 새벽이 가까워서였다.'는 과거 회상이지만 '몹시 춥다. ~ 몽롱하게 정신이 흩어진다.'는 현재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거와 현재의 명확한 경계를 보여 주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다시 '전공 과목은?' 으로 시작하는 회상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외에도 작품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